

국내 최대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 완공

여가·상담·치료·연구... 5월 29일 개관 기념식



(왼쪽 다섯 번째부터)서울시 복지재단 이성규 대표, 노재동 은평구청장, 이재우 국민권익위원장, 총무원장 자승 스님,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 나진구 서울시 제1부시장, 민주당 이미경 의원,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등이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의 개관 기념식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이날 개관기념식에는 5000여 축하객과 인덕원 산하 시설 300여 직원,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석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종합복지타운이 완공됐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사장 성운)은 5월 29일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 개관 기념식을 열고 21세기형 노인복지시설을 선보일 것을 다짐했다. 인덕원은 불교계에서 손꼽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이 북한산 삼천사 주지로 부임한 1970년대, 삼천사 주변 마을에 모여 어렵게 생활하던 절거민에게 보탬이 되고자 팔과 라면 등 생필품을 보시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지에 관심을 두게 됐다. 그렇게 지난 1994년 사단법인 인덕원을 설립해 35개 산하 단체를 두

고 줄곧 노인복지사업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인덕원이 변화를 실행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된 2008년 7월부터이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해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과 그 가족이 부담 경감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20만 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장기요양기관에 입소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이 집과 가까운 지역에 입소 하길 바랐고,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시설이 부족했다. 이에 인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그간 운영해오던 복지관과 노인전문요양원을 허물고 2년여 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09년 7월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을 완공하게 됐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은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4층, 연건평 약 6,600㎡(약 2,000여 평)에 300여 병상을 마련했다.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에는 노인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덕데이케어센터, 인덕치매상담센터, 인덕노인복지연구소 등의 시설을 마련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에게 의료, 재활, 작업 치료,

문화, 여가, 종교생활 등이 한곳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복지에 필요한 총체적인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는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은 태양열 시스템 도입으로 인체에 무해한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해 환경에 민감한 어르신들의 건강까지 고려했다.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의 입소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받은 분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일반 어르신의 경우 본인부담금 20%(국가보조 80%)·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 10%(국가보조 90%)·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국가보조 100%)로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센터에 입소한 어르신은 모두 식대, 간식, 이비용 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인덕데이케어센터 실시로 어르신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도 제공된다.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 내 인덕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를 하지 못하는 160분의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신종플루, 천안환 사태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미뤄진 개관 기념식이 1년 뒤인 지난 5월 29일

개최됐다. 조금 늦은 개관 기념식이었지만 지역 어르신과 교계, 정계 등에서 온 5000여 인사들로 행사장이 가득 찼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에서 거행된 기념식은 1·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축하공연이 열렸고, 2부에서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이사장 성운 스님, 이재우 국민권익위원장, 이미경 민주당 의원, 서울시 사회복지재단 이성규 대표, 노재동 은평구청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축사에서 "인덕원이 불교 복지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최대 규모의 노인종합복지타운 개관으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성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국내 최대 노인종합복지타운을 개관하게 됐다. 사회복지시설을 수행 방편 삼아 복지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사회복지재단 이성규 대표는 "복지재단으로 복지관 의뢰가 들어오면 자신 있게 인덕원을 추천한다"며 "인덕원은 30개 나라 노인복지시설보다 훌륭한 시설과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02)3156-7500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라빈이에게 예쁜 귀를...

생명나눔 6월 환자, 민라빈군

14살 라빈이의 꿈은 멋진 수의사가 되는 것. 하지만 수의사가 되기 전에 귀를 갖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소원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실시하고 있는 치료비 지원 환자에 선천성 소이증을 앓고 있는 민라빈(남·14세)군이 선정됐다. 소이증은 귓바퀴의 형성부전으로 귓볼만 있고 다른 부분은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선천성 기형으로 태아가 자라면서 귀의 생성될 부위에 원인모를 이상이 생겨 귀가 형성되지 않고, 귓구멍이 없는 경우가 많다. 수술은 자신의 갈비뼈 연골로 귀 모양을 만들어 9~10세경에 이식해주는 것이 좋다. 선천성 소이증이 있는 라빈이는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무섭기만 하다. 남들과 다르게 생긴 귀 모양 때문에 또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심지어 어른들조차 신기한 듯 쳐다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개를 꼭 숙인 채 걷는 것이 버릇이 됐다고 한다. 자신감 없는 아들을 볼 때마다 엄마는 그저 안쓰럽다고 한다. 라빈이 엄마는 라빈이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알뜰 중독 남편과 시아 버지에게 학대받은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영향을 준 것 같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후 후 혼자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는 식당 일을 하면서 90만원



선천성 소이증을 앓고 있는 민라빈군이 엄마와 함께 웃고 있다. 라빈이는 꿈이 아픈지만 식당일을 하는 엄마를 위해 동생과 함께 집안청소를 해놓고, 엄마가 집에 돌아오면 인마도 빼먹지 않는다고 한다.

의 급여를 받고 있다. 월급은 부채를 갚고 월세를 내기 바빠 아들의 치료비는 염두를 못 내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수술을 미루다가는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어 수술을 결정했다. 예타는 엄마의 마음은 모른 채 라빈이는 귀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에 차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라빈이가 자신감을 되찾고, 예쁜 귀와 환한 웃음을 머금은 수의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따뜻한 희망을 더하자"며 후원원을 당부했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6월 10일 오후 3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2010 헌드솜 병원음악회'를 개최한다. '헌드솜'은 '큰 사랑'이라는 의미의 순 우리말이다. 음악회는 플루트 연주와 수화공연, 가수 김세화, 송봉주씨 등의 멋진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박선주 기자

YBC 참가자 모집 대불련

부처님의 땅 경주로 전국 대학생 불자들이 달려간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경호, 이하 대불련)가 8월 12~15일 경주일대에서 'Young Buddhist Camp(YBC)'를 개최한다. YBC 참가비는 12만원이며, 10학년 대학생과 6월 사전 접수를 하는 대학생에게 할인 특전이 있다. 한편 대불련은 YBC의 무대를 주도할 KBUF 문화부(공연팀)를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0명이다. (02)732-0239 박선주 기자

"한·일 젊은 세대를 위한 자리"

나눔의 집, 2010 피스로드 개최

나눔의 집(원장 원행)이 오는 8월 5~13일 역사캠프 '피스로드(Peace Road)'를 개최한다. 피스로드에는 2002년부터 매년 펼쳐지는 한국과 일본 양국 대학생 및 일반인 교류 프로그램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배우고 생각하는 자리이다.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피스로드

는 일본과 한국의 대학생 및 일반인들이 양국에 남아있는 전쟁의 흔적을 답사하고 위안부, 강제 징용 노동자 등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피스로드 참여자들은 8월 5~8일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 세워진 '여성의 정쟁과 평화자료관'과 조 선인이 강제 노동 작취를 당했던

지하 군사시설이었던 '마쓰시로 대본영 쉼터' 등을 방문한다. 8~13일 한국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불교계가 세운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의 피해 증언을 듣는다. 또 위안부 역사관 견학과 아시아의 역사평화와 교육 연대,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등을 방문한다.

이 밖에도 피스로드에서는 △전 일본군 병사의 증언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 △강제 노동자의 이야기 △할머니들의 복지와 인권 회복 강연△테마 토론 △세계 동시 수의사위 참가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나눔의 집 박재홍 간사는 "피스로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한국과 일본에 살고있는 젊은 세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갈지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031)768-0064 박선주 기자

건강한 가정 교육생 모집 한국여성불교연합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출산률 저하, 이혼, 가족해체 등 사회의 부정적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확산하기 위해 6월 28일~8월 10일 상담 전문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상담윤리 △여성학 △상담학 △가족심리 치료 통합 접근 △다문화 복지론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상담실습 등으로 20회에 걸쳐 진행된다.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전 가정폭력 상담원 및 다문화가정 상담

소 설치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다. 총 20회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해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이 수여된다. 이번 교육은 가정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해 보다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문인 교육이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육은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리고 수강료는 9만원이다. (02)738-5586 박선주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국최면과학원장 이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튼대학교 최면학 교수 국제 임상 최면 전문가(ICTH) 공인 심리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 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 ▶ 일시 : 매주 월요일 (7회과정)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1회에 한하여 무료수강 가능)
- ▶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전생 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몸은 왜 이렇게 아픈것일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 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지혜로운 삶을 찾게 한다.

빙의 치유 : 내안에 누가 있는것 같아요... 누군가 내 머리속에서 뭐라 이야기하는것 같아요 내가 나를 조종 할 수 없어요. 등 환청, 환각에 시달리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 행동, 괴벽, 정서불안, 악몽, 가위눌림 등의 증상으로 고통 받는 경우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 다니니 형사 악사요...

삶을 바꾸는 경이로운 최면의 세계!!

미국 스탠튼대학교(Stanton University)부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서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 255-0734~5

▶ **안내자료** 전생요법,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강의내용 등 자료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